

2026년 9월 3일

Hana FX Daily Letter

원화 강세 흐름 속 점점 낮아지는 하단



외환파생상품영업부
이유정 연구원

달러/원 전망 및 동향

• 금일 전망 : 매도 우위 수급 여건과 달러 약세에 하방 압력

daily range 예상: 1,354~1,365원

- 반도체 기업을 비롯한 수출업체들의 달러 매도 물량이 꾸준히 유입되며 수급상 매도 우위 여건이 이어지고 있음. 여기에, BOJ 관계자들의 매파적 발언에 이어 실개입 경계감도 고조되면서 엔화 가치가 급등, 이는 달러에 약세 압력으로 작용. 이에 따라 원화 강세 흐름이 이어지며 금일 달러/원 환율은 1,350원대 안착을 시도할 것으로 예상. 다만, 대기하던 수입업체 결제 수요 등 저가 매수세가 유입될 경우 하락 폭은 다소 제한될 수 있음. 한편, 중동 지역을 둘러싼 긴장감은 지속되고 있으나, 시장 민감도가 저하되면서 영향은 제한적인 것으로 판단됨

■ 전일 동향 : 2일 달러/원 환율은 전일대비 15.8원 내린 1,359.2원 마감

장 초반, 중동 리스크발 유가 급등과 연준 긴축 우려로 위험회피 분위기가 나타나면서 1,370원대 중반으로 상승. 이후 수출업체 네고물량 등 수급상 매도세에 낙폭을 확대해 1,368.7원에 주간 거래를 마칩. 이어진 야간장에서는 일본 당국의 개입 경계감에 엔화 가치가 급등, 이에 따른 달러 약세에 1,360원선 밀돌며 마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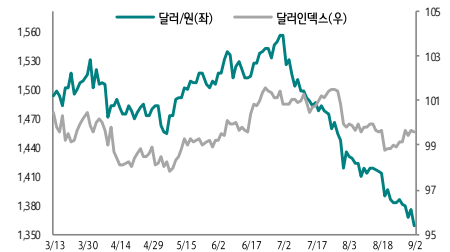
국제 통화시장 이야기

- (달러인덱스) 미-이란 간 지정학적 긴장과 유가 상승세가 이어졌으나, 뉴욕 연은 총재가 인플레이션 둔화 평가 등 도비시한 발언을 내놓으면서 달러는 약세 전환
- (유로-달러) 러-우 전쟁에 이어 중동 사태도 장기화되는 양상을 보이는 가운데, 유럽 천연가스 가격이 3년래 최고 수준으로 상승하자 유로화 약세 흐름 이어짐
- (달러-엔) 일본 외환당국의 레이트 체크설이 제기되는 등 시장 개입 가능성이 부각되자, 엔화가 가파르게 강세를 보이며 달러/엔 환율은 158엔대로 급락

하나에서 전해주는 FX New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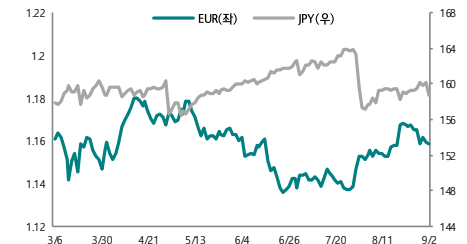
- 글로벌 경제에 여러 리스크 요인이 산재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한국 경제는 견조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음. 최근 애틀랜타 연준의 GDPNow 모델에 따르면, 미국의 3분기 경제성장률은 전기 대비 연율 환산 기준 4.8%로 직전 수치 (4.6%) 보다 상향 조정되었음. 민간 소비와 투자가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는 가운데, 특히 기업들의 대규모 AI 인프라 투자가 성장을 강력하게 견인하고 있는 모습. 주목할 부분은 AI 도입에 따른 생산성 향상으로 고용 증가세가 둔화되는 국면에서도 경제 성장 자체는 흔들림 없이 유지되고 있다는 점임. 한국 경제 역시 반도체 수출 호조를 발판 삼아 탄탄한 성장세를 이어가며 주요국 대비 성장 우위에 있는 상황. 특히, 최근 주요 국가들이 주로 재정 리스크로 인해 금리 상승 압박을 겪고 있는 반면, 한국의 경우 견조한 성장 모멘텀이 반영되고 있다는 점에서 다소 차별화됨. 이에 따라 글로벌 금융시장의 금리 불안이 상존하는 국면 속에서도 긍정적인 경제 펀더멘털에 힘입어 원화 강세 흐름이 안정적으로 지지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통화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다양하지만,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국면일수록 경제 펀더멘털의 영향력에 깊이 주목할 필요가 있음

원화 환율 추이



구분	시가	고가	저가	NDF
달러/원	1,375.0	1,375.0	1,357.8	1,358.0

주요 통화 추이



구분	EUR/USD	USD/JPY	USD/CNH
종가	1.1589	158.71	6.7173
전일대비	-0.0004	-1.46	-0.0048
재정환율	1,575.26	856.12	202.45

주요 경제지표 발표 일정

시간	지표	예상	이전
21:30	미국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	205k	203k
	월러 연준 이사 연설		
23:00	미국 8월 ISM 서비스업 PMI	54.1	54.1

애틀랜타 연준 GDPNow 미 성장률 전망



자료: Bloomberg

본 자료는 신뢰할 수 있는 정보에 근거해서 작성된 것이나, 결과에 대한 정확성을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모든 투자 등 금융거래는 본인의 책임 하에 진행되어야 합니다. 본 정보는 상품 가입 권유 및 유인 목적이 아닌, 고객 앞 참고를 위한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합니다.